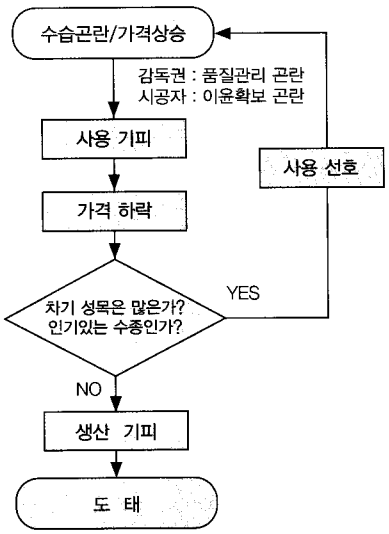
조경수목의 단편화 현상

박춘수 | 건설지원팀/선임과장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예전에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평소에 잘 사용되지 않던 벽오동이 설계에 반영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시행사명+지명'을 혼합하여 사용하던 아파트 명칭에서 친근함과 의미를 담아 '○○마을'로 명명하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오동나무는 봉황의 거처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봉황은 60년만에 열리는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전설에 마침맞게 주거동 측벽에는 대나무가 설계되어 있어, 배식설계만으로 보자면 아파트단지에 '봉황'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세곳의 재배지 검수를 통해 설계된 규격인 가슴높이지름 8cm의 벽오동을 대하였을 때, 도저히 내 현장에 도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잎도 얼마 있지 않은데다가 해당 규격의 벽오동은 마치 길쭉한 몽둥이 같은 줄기에 맹아지처럼 생긴 가지들이 듬성듬성 달린 모습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결국 녹음이 잘 우거져 당장 심었을 때 효과가 좋은 다른 수종으로 설계변경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수요에 의한 수목생산의 변화 과정

일반적으로 수목의 수급상황이 약 10년을 주기로 품귀와 과잉생산을 반복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나, 벽오동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많은 수목들이 도태되어 조경수목은 단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경수목의 단편화 현상은 지역과 단지별 특성과 관계없이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수종들로 이루어져 8 · 90년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외관만큼이나 조경수 경관은 표준화, 몰개성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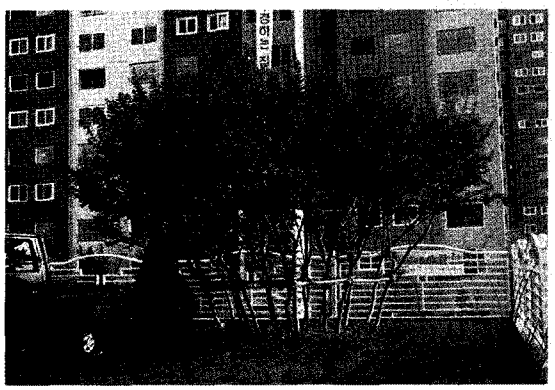
단편화 현상의 요인으로서 조경수목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한 문제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바 있으며, 본 글은 조경수목 품질기준과 가격체계의 획일성,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품질기준과 가격체계 세분화의 필요성

시방서의 벽오동에 대한 품질기준을 보면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라는 상투적인 품질기준이 언급된다. 물론 성목의 경우 비교적 단아한 수형을 볼 수 있겠으나, 조달청 기준으로 실제 통용되는 조경수목 기준인 가슴높이지름 8cm, 10cm의 한참 자라는 상태의 벽오동은 생장 특성상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등의 획일적인 품질기준을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처럼 수형이 불리한 수목이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비교적 양질의 수목을 재배할 수는 있겠으나, 크게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목과 가격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재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획일성의 문제는 동일수종 내에서도 발생한다. 가격체계는 조달청 가격과 조경수협회 가격으로 이원화 되었을 뿐, 그 가격 차이에 차별성을 인정할만한 품질기준의 차이는 없는 실정이다. 조경수를 활용한 표현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일수종 · 동일규격의 수목가격은 원칙적으로 같으며, 모든 조경수목의 품질기준은 현장용어로 'A급' 수목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어느 현장에서도 모든 수목이 시방서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최상급의 수목만을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한 수목이라도 표현방법에 따라 쓰임새가 유용하거나,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지하고 2m이상 확보되는 가로수용도 필요하고, 독립수용과 군식용, 때로는 밀식된 재배지에서 자란 수목도 모듬식재용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품질기준과 가격체계는 이러한 필요성을 발주처 감독원과 시공사 기술자의 적정한 타협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서 모든 기술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품질기준에 미흡한 수목의 활용 예.

용도에 따른 가격체계의 세분화는 조경수를 활용한 경관 표현방법의 다양성에 부합하면서 현장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발주처와 시공자간, 시공자와 생산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가격체계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영세 생산자들이 관련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나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문 생산자들은 품질의 차별화를 위한 경영전략과 기술개발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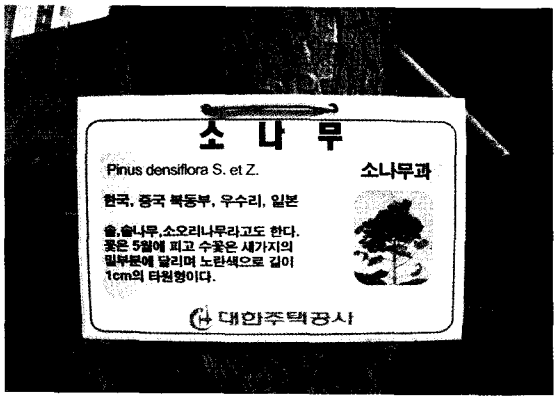
나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능소화나 매죽나무는 꽃과 열매의 독성으로 인해

관상가치가 높은 조경수임에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수목이다. 이밖에도 현장에서는 때때로 수목의 단편적인 속성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된다. 회화나무는 진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유실수는 벌레가 많이 든다든지, 목련은 꽃이질 때 지저분하다든지, 소나무는 송악가루가 날아든다는 등 단편적인 속성으로 인해 특정수목에 대하여 느끼는 일부 고객들의 혐오감은 다양하다.

의미의 부여로 인해 선호와 기피의 가장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사례가 왕벚나무이다. 한때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이유로 금기시 되어오던 벚나무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원산지'론이 대두되면서 급속히 퍼지더니,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조경수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명산의 등산로 입구이든, 역사유적지든 장소를 불문하고 봄철이면 어김없이 흐드러진 벚꽃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룬다. 봄의 전령사라던 목련이나 개나리도 벚꽃의 위세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듯하다.

요즘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목표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태학적 정보들로 차있는 것이 아쉽다. 개화기는 몇 월이고, 꽃색은 무슨 색이고, 심지어는 생육형태가 곧게 자란다거나 소나무의 개화기가 5월이라는 등, 나무를 보면 자연스레 알 수 있거나 일반인들에게는 무의미한 정보들이 아닐까 싶다.



소나무의 꽃도 꽃이라고 인지할까?

회화나무는 진액이 많이 나온다는 사람들에게 회화나무는 학자수이고 귀신을 쫓는 최고의 길상목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송악가루로 인해 소나무가 싫다는 사람들에게 소나무의 피톤치드를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나무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심미적 요소에는 나무의 형태적 아름다움과 계절에 따른 꽃과 열매의 시각 · 후각적 요소들 뿐만 아니라, 나무에 내재된 의미와 얽힌 이야기를 통해 보다 큰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경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객인 일반인들의 나무에 대한 감정이 좋은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고객은 보다 질 높은 경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조경수에 대한 관리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질 높은 경관을 창출하고 유지하면서 조경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고객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